

축 사

계사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이 화목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시길 두손모아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만물이 움트고 봄을 맞이하는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와 겨울의 긴 밤도 봄의 햇살과 아침의 밝음에 스러지고 모든 생명은 희망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부산 삼광사에 새로운 주지스님을 모시는 진산식이 열리는 기쁜 날입니다. 천태종의 대표사찰인 삼광사는 1969년 창종된 이래 여러 스님들께서 소임을 맡아 시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를 이어 새로 취임하는 무원(務元)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종단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현안을 추진해 왔으며, 천태종 중앙종무기관은 물론 주요한 사찰의 소임자로 지역 일선에서도 원력과 공심으로 쉼 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분단의 벽을 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원만히 회향한 개성 영통사 복원은 북한불교 발전에 대한 큰 원력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왕성한 활동은 사회화합과 함께 자비로운 연면을 보여주는 공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쉼 없는 원력으로 정진하는 무원스님의 활동에 부산 시민과 불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며, 스님께서도 그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이곳 부산은 불심이 높고 불자들의 활동이 충만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남

북의 위기적 대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소외된 이웃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쁜 시대지만 한발 멈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훌륭하신 주지스님과 함께 소외된 이웃과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무원스님의 진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즐거운 설맞이와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